

SNK인터랙티브, 온버프(ONBUFF)와 블록체인 대행 계약 체결

- SNK, 대표 IP 일부 단독 소유권 부여해 블록체인 수권 시작
- 게임, IP, 블록체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온버프' 프로젝트 구성



SNK가 블록체인 업체에도 IP수권을 시작한다.

SNK인터랙티브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 PDX(피디엑스)에 블록체인 대행권한을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온버프 플랫폼에서 SNK IP를 시작으로 다른 여러 IP(지식재산권) 들이 블록체인에 접목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SNK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표 핵심 IP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사무라이 쇼다운' 3종을 비롯한 여러IP들을 블록체인과 접목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것으로 내다 본다.

본 계약의 프로젝트명은 온버프(영문: OnBuff)로, 15년 이상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게임 IP 및 플랫폼 사업을 진행해 온 이강용 대표(現피디엑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게임로프트, 게임빌, 위메이드 등 국내외 게임산업 분야 전문가 이신우 부사장, 스마일게이트 등 경력의 ICO 전문가 서한호, 캐리프로토콜 사업 총괄을 진행한 유정원 등 블록체인 및 게임, IP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강용 대표는 "온버프는 콘텐츠 산업과 IP 산업의 효율성과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이다"라며 소개한 뒤, "IP 소유기업들에게는 보다 쉽게 IP 서비스를 확장하고, IP의 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으며, IP 를 사용하는 기업은 보다 쉽게 IP를 사용하고 가치 창출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NK인터랙티브 홍보팀 관계자는 "이전 모바일 플랫폼이 등장하며 IP로열티 매출을 견인했듯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미래의 새로운 매출을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으로 게임과 IP관련 산업군이 보다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SNK는 글로벌 게임업체로 지난해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200여개의 게임 ('더 킹 오브 파이터즈' , '아랑전설' , '사무라이 쇼다운' 등)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중/일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에 두터운 팬덤층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